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민경*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
Professor : Kim, Min-Kyeong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correlation of family abus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between ego resilience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265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SPSS and AMOS. Instruments were Bradburn(1969)'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lson and Barnes(1982)' Quality of Life, Straus(1988)'s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Shin(2001)'s social maladaptation of Korean General Health, and Block and Kremen(1996)'s ego resilienc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amily abuse experience and social maladapta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s of family abus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Family abuse experience and social maladaptation negatively influenced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positively influenced daily life satisfaction. Thus special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to increase university students' da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in order to built ego resilience.

▲주요어(Key Words) : 가족학대경험(family abuse experience), 사회부적응(social maladaptation),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 일상생활 만족(daily life satisfaction), 대학생(university student)

I. 서론

우리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지대에서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은 끊임없이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요구됨으로서 복잡하고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속에서 살아간다. 즉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학생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탄력성은 어린 시절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Kang, 1994; Lim, 1996)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에 따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민경 (E-mail : mkm35@nsu.ac.kr)

르면 가정의 환경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사회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및 습관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성격이 형성되어가며 지적,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자아존중감과도 높은 상관을 보이며(Lim, 1996), 자아탄력성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Kang, 1994)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가족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특성 및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원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생의 경우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이 자신과 미래 가족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출생가족으로부터의 경험과 사회생활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검토함으로써 대학생의 현재의 생활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가족간 불화, 가족의 고통, 가족사망, 관계의 부재나 상실 등 가족안에서의 스트레스는 강한 불행경험으로 여겼으나, 가정회복, 자녀성장, 경제적 수입, 휴식/휴가 등은 빈번한 행복경험으로 여겼다(Koo & Kim, 2006). 또한 학업, 직업,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같은 전형적인 경험들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예측했다(Ryff, 1997). 즉 가족안에서 발생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행복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에 대해 Lopez and Heffer(1998)는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Finklehor(1998)는 학대경험의 장기적 영향으로 우울, 불안, 자기파괴적 행위, 고립, 자존감 저하, 신뢰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즉 자녀들이 경험한 아동학대는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 공격성, 자존감 저하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를 대표하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가족학대경험을 안겨주는 부모행동과 달리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신구조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며(Bowlby, 1988),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지각을 하도록 돕는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6). 또한 아동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다(Kwak, 2009). 즉 아동기의 가족학대경험은 자존감을 낮게 하고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정신건강,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에 대한 예견변인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절망감이 낮게 나타났다(Choi, 1998). 즉 전반적인 사회관계와 문제해결능력

등은 그들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느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 Kim, 2009)고 하였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Song, 2006).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정서중심적인 대처를 하고(Lazarus & Folkman, 1984), 개인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지, 조직, 회상하거나(Kanfer & Hagerman, 1981)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Wenzlaff, Wenger, & Roper, 1988)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Rew et al.(200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고 삶의 위협행동에 덜 관여한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낮아졌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이나 사회부적응에 대한 긍정적 개입과 접근보다는 이들의 부정적 결과에 치중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강조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즉 이들의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지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탄력적 산물을 자기개념이나 자존감, 개인적 유능성, 자기수용, 자기가치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유능성을 통해 평가되고 있다(Rew et al., 2001; Sagy & Dotan, 2001; Lee, 2006)고 볼 때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켜 줄 탄력성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력성에 근거한 접근은 전통적인 결점관점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강점관점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지를 보려는 것이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탄력성은 어떤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 및 회복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Yang & Choi, 2001). 즉 가족학대를 경험하고 사회에 부적응된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매개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고 하였다. Song(2006)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여 일상생활 만족 향상에 자아탄력성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학대경험이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Colman & Widomb, 2004; Martsof, 2004) 폭력당시의 개입 뿐만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서도 가족학대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을 증진시키고 이에 대한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일상생활만족 향상에 있어 중요하며 나아가 이들 관련성은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을 완화시키는데 자아탄력성을 개발, 향상시키고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있는가?

II. 선행연구고찰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에서 Lopez and Heffer(1998)는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아동학대가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Briere & Runtz, 1990)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Finklehor(1998)는 학대경험의 장기적 영향으로 우울, 불안, 자기파괴적 행위, 고립, 자존감 저하, 신뢰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즉 자녀들이 경험한 아동학대는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 공격성, 자존감 저하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존감과 정신과적 증상을 중심으로 아동기 성학대와 심리적 산물과의 관계를 연구한 Romans et al.(1995)의 연구에서 고교시절을 즐겁게 보내고, 좋은 사회생활과 운동에 재능이 있었던 학대 경험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학대 경험 여성들에 비해 낮은 정신병과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orme(2004)는 아프리카계 미국여성 264명을 대상으로 성인기 회

생화 및 아동기 학대의 위험과 자존감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Park, 2006). 결과적으로 아동기의 가족학대경험은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 이후 정신건강,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부적응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Song, 2006). Kwon(2003)은 초, 중,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더 적극성을 띠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를 연구한 Kim(2005)은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서 및 행동문제에 있어 더욱 적응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O'Connell-Higgins(1983)는 탄력적인 아동들이 삶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적인 접근성,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려는 능력, 유아 때부터 계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나 삶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Chapman and Mullis(2000)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며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상황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내적 감정과 정서상태가 대학생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다른 사람을 돕는 성장행동에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Perkins & Jones, 2004),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가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glund & Leadbeater, 2004). 학교에서 개인이 경험한 성공은 그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사회기술과 문제해결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Gray, 2001). Patrick(1997)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동 또는 파괴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부적응과의 상호관련성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자아탄력성의 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으

로 대처하는 반면에,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중심적인 대처를 하고(Lazarus & Folkman, 1984), 개인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지, 조직, 회상하거나(Kanfer & Hagerman, 1981)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Wenzlaff, Wegner, & Roper, 1988)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Rew et al.(200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고 삶의 위협행동에 덜 관여한다고 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만족스러운 생활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가족학대경험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공격행동이나 비행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Toth, Cicchetti, & Kim, 2002; Kernic et al., 2003; Park, 2006).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를 대표하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쉽터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Hughes (1988)의 연구결과 쉽터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55%가 심하게 위축된 상태였으며 약 10%는 자살위험이 있었다.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추후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Beriere & Runtz, 1990) 과도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가정폭력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족학대경험을 안겨주는 부모행동과 달리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신구조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며(Bowlby, 1988),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지각을 하도록 돕는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6). 또한 아동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다(Kwak, 2009). 즉 부모의 돌봄 양육태도가 자녀의 우울감 감소, 행복을 증진시켰다.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 복합적 과정으로 정의된다(Lee, 1983). 특히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연습 기간이 없으며,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한 겸양과 인내의 미덕 때문이기도 한다고 하였다(Jeong & Noh, 2006). 또한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에 대한 예견변인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절망감이 낮게 나타났다(Choi, 1998). 즉 전반적인 사회관계와 문제해결능력 등은 그들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한 문

제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느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 Kim, 2009). Kim(2010)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인지와 주관적 안녕감 정서로 행복을 보았는데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업성취도, 성취효능감, 사회효능감, 대학만족, 자기수용, 환경통제 등 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일상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아동기의 가족학대경험은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 이후 정신건강,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6). Jo and Lee(2007)는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와 Han(2010)은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문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Kim(2006)은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이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자각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 상호작용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며(Song, 2006), 학교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 및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ee, 2004). Chung, Ann, and Kim (2003)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심각한 갈등이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이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Go & Yoon, 2007).

이상과 같이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일상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주며 자아탄력성에도 부정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자아탄력성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

은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각 대학의 전공과 학년에 무관하게 교양 수업과 전공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조사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은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전 연구목적에 밝힌 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대학에서 남녀대학생 각각 30명 씩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대학생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대학생 26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130명 49.1%, 여학생이 135명 50.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류층 20.3%, 상류층 12.7%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40.0%로 가장 많고 종교없음도 46.3%로 나타났다. 연령은 대학생인 관계로 25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일상생활만족

일상생활만족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 및 가정, 학교생활 등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생의 일상생활 만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 and Barnes(1982)의 Quality of Life 척도를 수정하여 일상생활만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나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하다', '나는 부모와 형제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1$ 이다.

2) 가족학대경험

가족학대경험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Straus(1988)의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참고로 하여 정서학대(2문항), 신체학대(2문항), 방임(4문항) 등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학대경험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내용으로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나에게 때려주겠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나를 벽에 밀치거나 벽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또는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등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학대경험이 많음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18로 나타났다.

3) 사회부적응

사회부적응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환경속에서 전반적으로 역할수행과 올바른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부적응은 Shin(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사회부적응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없었다',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역할을 잘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등 총 9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732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실패의 상황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해 Block and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를 Yoo, Hong, and Choi(2004)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하고 Kim(2005)이 문항을 재구성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낙관성, 호기심,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호기심은 새로운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흥미로운 태도, 대인관계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이다. 점수 평균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9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변인들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표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Hong, 2000).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roian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였다. 즉 가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사회부적응의 경향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r=-.254, p<.001$)를 나타내 가족학대의 경험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학대경험은 일상생활만족과도 유의한 부적관계($r=-.401, p<.001$)를 나타내어 가족학대경험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부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r=-.553, p<.001$)를 나타내 사회부적응도가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r=-.548, p<.001$)가 나타나 사회속에서 부적응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r=.535, p<.001$)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학대경험은 일상생활만족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 높은 가족학대경험은 일상생활만족을 낮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도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내어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여 자아탄력성에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일상생활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의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가족학대경험 및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가족학대경험 및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Figure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으로 가는 경로와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통하여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 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Aroi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에 부적으로 관련되었다(<Figure 2>, <Table 3> 참조).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매개모형의 RMSEA가 .035이고 TLI값이 .847이며 CFI값이 .923로 CFI값은 1에 근접하고 있으나 TLI값이 낮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Table 2> 참조).

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1	2	3	4
1. Family Violence Experience	1.000			
2. Social Maladaptation	.374***	1.000		
3. Ego Resilience	-.254***	-.553***	1.000	
4. Daily Life Satisfaction	-.401***	-.548***	.535***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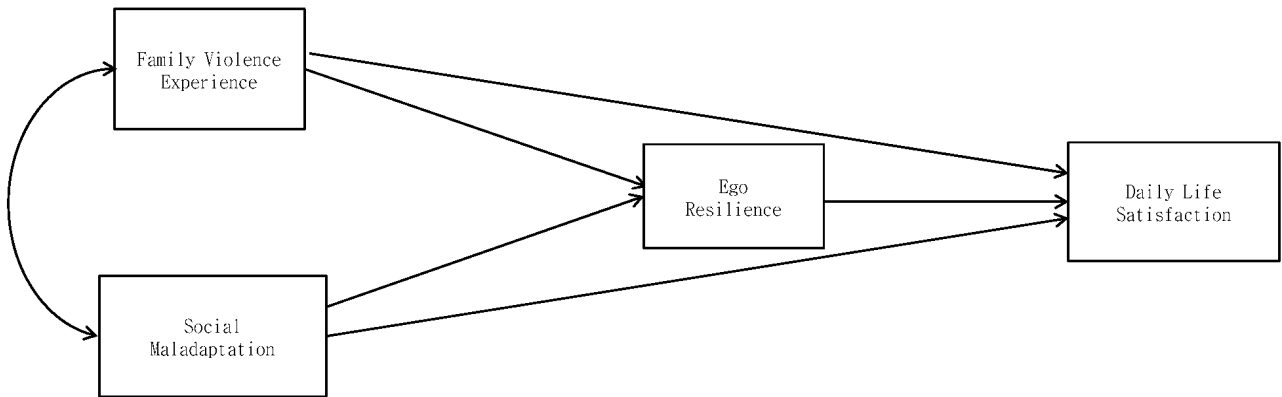


Figure 1. Basic Model: The Relation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able 2. Model's Fitness

Model	χ^2	df	p	RMSEA	TLI	CFI
Partial Mediating Model	60.603	1	.000	.008	.974	.996
Complete Mediating Model	27.107	3	.000	.035	.847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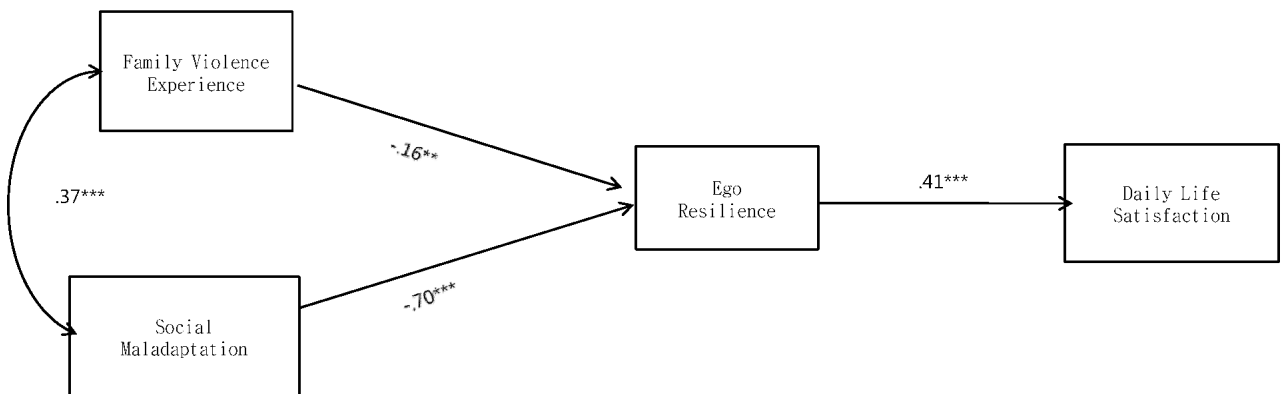


Figure 2. Complete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able 3. Complete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β	B	S.E	C.R
Family Violence Experience → Ego Resilience	-.157**	-.140	.039	-3.014
Social Maladaptation → Ego Resilience	-.703***	-.682	.054	-12.743
Ego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412***	.644	.078	6.567

** $p < .01$, *** $p < .001$

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과

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부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Aroian Test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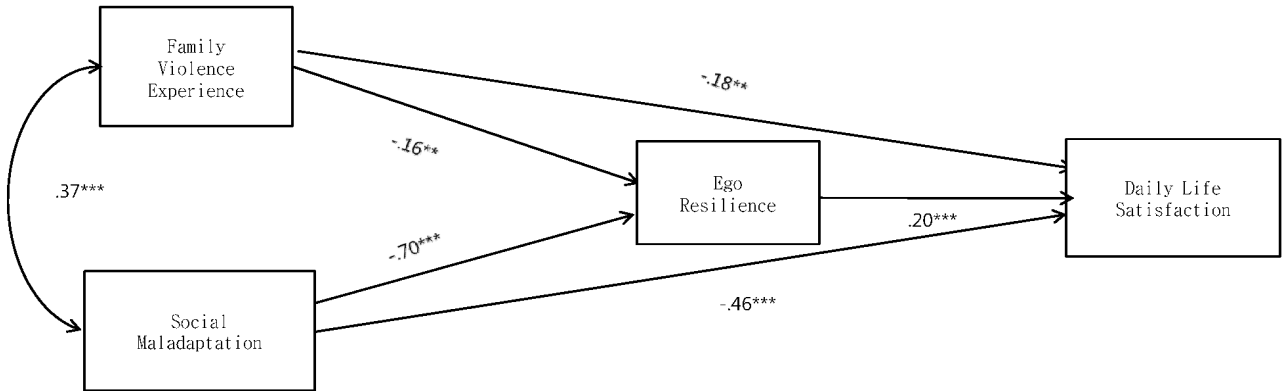


Figure 3. Partial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able 4. Partial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β	B	S.E	C.R
Family Violence Experience → Ego Resilience	-.157**	-.140	.039	-3.014
Social Maladaptation → Ego Resilience	-.703***	-.682	.054	-12.573
Ego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203***	.263	.143	3.971
Social Maladaptation → Daily Life Satisfaction	-.463***	-.632	.120	-5.291
Family Violence Exper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182**	-.169	.081	-3.430

** $p < .01$, *** $p < .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by Aroian Test

	Z
Family Violence Experience →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2.915*
Social Maladaptation →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3.765**

* $p < .05$, ** $p < .01$

하였다(Mackinnon et al., 2002).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 a(비표준화계수): (가족학대경험->자아탄력성)의 효과
- b(표준화계수): (자아탄력성->일상생활만족)의 효과
- SEa: a의 표준오차, • SEb: b의 표준오차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Aroian Test 결과 Z값은 2.915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매개효과($p < .05$)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Aroian Test 결과 Z값은 3.765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매개효과($p < .01$)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은 직접적으로 일상생활만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학대의 경험이 높을수록 추후 일상생활만족의 성향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가족학대경험과 일상생활만족을 매개하고 있어 가족학대경험이 높다하더라도 일상생활만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부적응도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을 매개하고 있어 사회부적응이 높을 때 일상생활만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대학생의 가족학대라는 부정적 경험을 하고 사회부적응이 높을 지라도 자아탄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궁극적으로 가족학대경험 및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 Aroian 검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타나며 일상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시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성장후에도 자존감이 낮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낙관적이지 않으며 호기심을 갖지 않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는 등의 자아탄력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또한 일상생활만족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Finklehor, 1998; DeLorme, 2004; Park, 2006)과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킨다는 Kwak (2009)의 연구를 볼 때 아동기 가족에서의 경험이 추후 대학생시기의 일상생활만족과도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부적응과 자아탄력성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생활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과 태도는 자아탄력성의 결여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이 청소년의 유능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결과들(Patrick, 1997; Hoglund & Leadbeater, 2004)과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일상생활만족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Rew et al., 2001) 등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낙관성과

호기심을 의미하며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가 전제되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일상생활만족도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고 삶의 위협행동에 덜 관여한다고 한 연구(Rew et al., 2001)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갖춰졌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정서관리나 통제에도 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과거 가정에서 부정적 경험이라도 현재의 일상생활만족까지도 영향을 줄을 알 수 있다.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학대경험이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Colman & Widomb, 2004; Martsof, 2004) 폭력 당시의 개입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서도 가족학대경험을 통해 개인심리적, 행동 문제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대경험보다는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더 주고 있어 현재의 일상생활만족은 사회적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의미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적응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에 대한 예견변인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절망감이 낮게 나타나며(Choi, 1998),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느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 Kim, 2009)고 한 결과들은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넷째, 자아탄력성이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 사이에서 일상생활만족과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가족학대경험이 심각하고 사회부적응이 높은 상태에서 자아탄력성이 작용하는 경우 일상생활만족은 향상될 수 있는 기여점을 제공하였다. 대학생들은 다른 발달단계와 달리 심리적 유예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분은 학생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요구는 성인기에 진입하기에 필요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보다 많은 과중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상생활만족을 위한 활동은 다른 시기보다 먼저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의 한 방법으로 자아탄력성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낙

관성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을 가질 때 높은 자아탄력성은 보장되며 따라서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자아탄력성의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향상 및 프로그램 등이 적극 개발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가족학대경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에 대한 가족학대경험의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결과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상생활만족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존재해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outreach를 통해 대학생이 개입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대학내 학생생활상담센터 등에서 폭력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이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활성화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가족학대경험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내 예방적 차원의 의무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부적응은 일상생활만족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인 관계가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부적응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사회행동 등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부적응 정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과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을 매개하는데 자아탄력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고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개입관점이 확인되었으며 가족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은 삶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이 전제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장점과 특기 기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즉 문제행동이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접근이 유효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에 있어 과거의 가족안에서 경험 즉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속에서

의 부적응 또한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파악한 결과 대학생 시기에 가족을 넘어 보다 확대된 사회적 환경이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을 위한 가족과 사회환경 모두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을 심각성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가족학대 하위영역별로 각각 분석하지 못한 점, 아동기 경험의 과거 기억과 인지에 의존하여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본 연구의 핵심요인으로 이를 측정하는데 우리 실정과 대학생이라는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보다 타당하고 신뢰도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을 야기시키는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상생활만족의 각 영역을 살펴볼지 못한 점과 사회부적응의 수준을 고려한 집단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연구표집 대상자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고 최근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연구의 과제로 남기며 인생에 있어 행복이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대학생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and company.
- Beriere, J. & Runtz, M.(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d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e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wley, J.(1988). Development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IL: Aldine.
- Briere, J. & Runtz, M.(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3), 357-364.
- Chapman, P. L. & Mullis, R. L.(1999). Adolescent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Child Study Journal*, 29(1), 69-78.

- Cho, G. Y. & Lee E. H.(2007).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Mediation link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family strength and behavior problems. *Studies on Korean Youth, 18(1)*, 79-106.
- Choi, M. S.(1998).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tress 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ung, H. K., Ahn, O. H., & Kim, K. H.(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al impulse. *Korean Journal of Youth, 10(2)*, 107-126.
- Cicchetti, D. & Toth, S. L.(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Colman, R. A. & Widom, C. S.(200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28(11)*, 1133-1151.
- DeLorme, P. M.(2003). *The effect of spirituality, social network orientation, victimization, and childhood abuse on the self-esteem and resilience of African-Americ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ashington, D.C.
- Finklehor, D.(1998). *The trauma of sexual abuse: Two models*, In G.E. Wyatt & G.J. Powell(Eds.), *Lasting Effect of Child Sexual*.
- Go, J. H. & Yoon, K. R.(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n Korean Youth, 18(1)*, 185-212.
- Gray, J. P.(2001). *The relations of teacher education students' resiliency, work motivation, and school-level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Texas.
- Han, Y. M.(2010). *Family health, ego resiliency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active stress cop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Hoglund, W. L. & Leadbeater, B. J.(2004).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on chang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33-544.
- Hong, S. H.(2000). Fitness selection index and basi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 161-177.
- Hughes, H. M.(1988).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8*, 77-90.
- Jeong, M. & Noh A. Y.(2006). Development of a college students' lifestyle scale focusing on life task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iatry, 18(3)*, 547-567.
- Kanfer, F. H. & Hagerman, S.(1981).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P. Rehm(Eds.), *Behavior therapy for depression: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pp.143-180). N.Y.: Academic.
- Kang, S. G.(1994). Life for respecting me: Vigor of life: Self-esteem. written by Branden Nathaniel, Hakgisa.
- Kernic, M. A., Wolf, M. E., Holt, V. L., McKnight, B., Huebner, C. E., & Rivara, F. P.(2003).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whose mothers are abused by an intimate partner. *Child Abuse & Neglect, 27(11)*, 1231-1246.
- Kim, K. M.(2010). Correlations of happiness and self-acceptance promotion in college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iatry, 22(3)*, 863-883.
- Kim, M. J.(2005). *Affecting on famil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ress and ego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M. L.(2006). *Affecting on school adjustment perceived child's family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U. C., Park, Y. S., & Kwak, K. J.(1998).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level of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iatry, 3(1)*, 79-101.
- Koo, J. S. & Kim, U. C.(2006).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2)*, 77-100.
- Kwak, Y. Y.(2009). *The effects of child-rearing practices and college student's financial independenc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won, J. E.(2003). *The relationship of Parent-Peer attachment, problem-solving style and ego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ee, H. D.(1983). Practice of human relationship training. Jungangjeogsungchulpansa.
- Lee, S. J.(2006).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 on adolescents experienced family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Lee, Y. S.(2004). *Adolescent's school stress, ego 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im, B. H.(1996). *The effects family environment on self conception and career perception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ook University, Seoul.
- Lopez, J. & Heffer, N.(1998).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2(3), 183-195.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E.(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 7, 83-104.
- Martsof, D. S.(2004). Childhood maltreatment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in Haitian adul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4), 293-299.
- O'Connell-Higgins, R.(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Olson, D. H. & Barnes, H. L.(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ark, B. K.(2006). *An exploratory study of eco-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Park, Y. S., Kim U. C., Chung, K. S., Lee, S. M., Kwon, H. H., & Yang K. M.(2000).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5(1), 94-118.
- Park, Y. S., Kim U. C., & Min, B. G.(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Education Psychology Study*, 16(2), 63-92.
- Patrick, H.(1997). Social self-regulation: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 social relationships, academic self-regulation, and school performance. *Educational Psychologist*, 32(4), 209-220.
- Perkins, D. F. & Jones, K. R.(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 547-563.
-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1996).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pp.3-23). N.Y.: Pleum.
-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Yockey, R. D.(2001). Correlates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 Romans, S. E., Martin, J. L., Anderson, J. C., O'shea, M, L., & Mullen, P. E.(1995). Factors that mediate betwee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4), 585-593.
- Sagy, S. & Dotan, N.(2001). Coping resources of maltreated children in the family: A salutogenic approach. *Child Abuse & Neglect*, 25, 1463- 1480.
- Seo, H. J. & Kim, J. O.(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Shin, S. I.(200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20 & KGHQ-30.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210-235.
- Song, Y. K.(2006).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Straus, M. A.(198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 249-270.
- Toth, S. L., Cicchetti, D., & Kim, J.(2002).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behavior, attributional styles and behavioral symptomatology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5), 487-501.

Yoo, S. K., Hong, S. H., & Choi, B. Y.(200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Korean Education Psychology Study*, 18(1), 393-408.

Wenzlaff, R. M., Wenger, D. M., & Roper, D. W.(1988). Depression and mental control: The resurgence of unwanted negative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82-892.

접수일 : 2011년 11월 15일

심사일 : 2011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02일